



푸른길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리모델링해 만든 신시와는 편하게 둘러 전시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연장으로 커피숍으로...

갤러리가 달라졌어요

올 한해 광주에는 유난히도 많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신생 공간들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음악회, 문화 강좌 등으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기를 퍼트렸다. 단 순히 전시만을 감상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가볍게 둘러 차 한 잔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올해 생겨난 공간들의 특징이다.

광주 근현대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양림동에 지난 5월 문을 연 '515갤러리'는 디자인과 공예를 주로 전시하고 있다. 또 독특한 개인 소장품과 조형, 그림, 주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다.

전시와 함께 515갤러리가 눈길을 끄는 것은 다양한 문화 강좌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주)마음515 이승찬 대표가 만든 공간으로 디자인 등 문화강좌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갤러리그라피'와 '크리스탈 공예' 강좌를 운영중이다.

강좌와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인상적이다. 전시 개막식 때마다 갤러리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시낭송, 인디밴드,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인문학, 문학, 예술 등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는 세미나와 워크숍 운영도 구상 중이다.

515 갤러리, 문화강좌·음악·영화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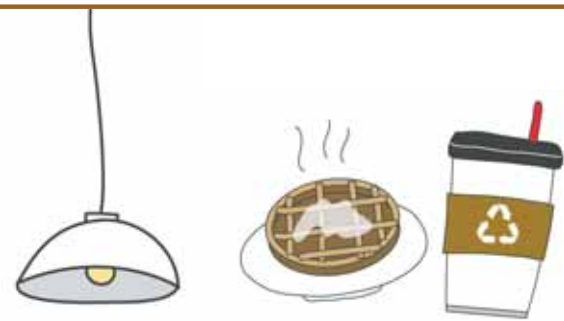
신시와, 공방 만들고 게스트 하우스 운영

시민들 생활속으로 한결음 더 가까이

푸른길에 문을 연 '신시와(와)'도 사랑받는 문화 공간이다. 문화기획자 박성현씨가 1960년대 만들어진 아담한 한옥을 리모델링해 만든 신시와는 갤러리보다는 '쉼터'의 성격이 강하다. 푸른길을 산책하다가 편하게 둘러 차와 음악을 즐기고 갈 수 있다.

박씨는 신시와를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개관전에서는 '정크아트'를 주제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됐고, 젊은 작가들의 전시와 전라도의 것들을 보여주는 '촌스럽게'전을 열기도 했다.

신시와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일부 공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과 함께 아트상품을 개발하는 공방을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동안 갤러리가 없었던 서구 풍양동에 문을 연 '갤러리 아크'도 지난 9월부터 매달 문화강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이요숙 관장이 직접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고,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가 시민들에게 작품세계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11월에는 이영애 전 시립무용단장이 '몸짓이 만드는 빛깔들'을 주제로 무용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미술이라는 특정 장르에서 탈피해 무용과 음악 등 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갤러리 아크의 '아트숍'도 인상적이다. 시민들에게 문화를 친숙하게 알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트숍에서는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아트 상품과 소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아담한 공간에 놓인 소박한 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서양화가 신수정씨가 20년지기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제회 갤러리'에서는 광주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개관전으로 한국화가이자 문화가인 서울대 김병중 교수와 국내에 현대사진을 정착시킨 구본창 교수가 제회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고,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이 밖에도 올해 김대원 조선대 교수가 동명동에 만든 '수하갤러리'와 서구 동림동에 문을 연 '수아트 갤러리'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여 4명 사랑의 해프닝

빛소리오페라단 '버섯피자'

13~15일 광주아트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25번째 정기공연 작품으로 오페라 '버섯피자'를 무대에 올린다. 13일 오후 7시30분, 14일 오후 3시·7시30분,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

'버섯피자'는 남녀간의 사랑을 유쾌하게 비튼 블랙 코미디 오페라다. 프로바조 백작과 결혼한 볼륨푸아는 젊고 매력적인 스키피오와 사랑에 빠진다. 볼륨푸아는 스키피오와 결혼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남편이 좋아하는 버섯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죽이기로 한다. 하지만 백작은 그를 연모하던 허녀 포비아를 통해 이 계락을 알게되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총감독은 최덕식 광주대 교수이며 연출은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지휘는 임흥규씨다. 볼륨푸아역에 소프라노 유형민·장희정·임영란씨, 프로바조 백작역에 마명준·김기보·김형진·손승범씨, 스키피오역에 장호영·정기주·김용덕씨 등이 출연한다.

공연장 광주아트홀은 총장로에 자리잡은 125석 규모 소극장으로 가까이서 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5000원. 문의 062-227-74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7일 '광주문화포럼' 6번째 강좌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 '현대미술과 법' 강의

광주일보사와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이 공동주최하는 '광주문화포럼' 여섯 번째 강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안경환(전 서울대 법대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나

서 '현대미술과 법'을 주제로 동서고금을 오가며 미술과 법을 연결지어 강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서양화가 김병중(서울대 교수)씨의 파트너로 지난 2004년 제5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황무라비와 모세의 법부터 동성결혼법, 북한인권법에 이르기까지 미술



그는 "문학, 미술, 음악 등 표현 방식은 달라도 모든 예술은 시대의 거울, 즉 사람과 세

작품에 투영된 다양한 시대상과 인간의 마음을 더듬어낼 예정이다.

그는 건축, 디지털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의 분화와 융합에 따라 그 속에 투영된 법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상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대의 말이자 그림인 법에는 사람의 마음이 투영돼 있는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법도 예술도 다원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산타클라라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예술의 전당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법과 문학 사이' '법과 영화 사이' '법 세익스피어를 읽다'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등이 있다. 문의 062-608-4244.

/김경민기자 kki@

담양 생오지문예창작촌 문학지 발간

담양 (재)생오지문예창작촌(대표 문순태)에서 문학전문지 '창작촌'을 발간했다. 문학마저도 중앙집권의 권위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문순태 작가, 송수권 시인, 오덕렬 수필가 등 지역의 뜻있는 문인들이 의기투합했다.

'창작촌'은 기존의 문예지와는 차별화된 공간을 지향한다. 기성문인 작품뿐 아니라 창작대학 수강생 작품까지 실어 창작열을 북돋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번 창간호에는 신경림, 오세영, 허영만, 문태준 시인의 시와 문순태, 은미희 작가의 소설, 윤삼현 동화작가의 동화, '황용주 : 그와 박정희의 시대' 등이 수록됐다. 문의 062-608-4244.

문순태 대표는 "창작촌"은 기성과 신인의 작품을 함께 수록, 발전적인 경쟁을 견인하는 데 있다"며 "문학의 엄숙성과 순결성을 지키면서 향후 계간지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은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문예창작 공간으로 2년 과정의 문예창작대학, 문학전문지 발간, 문학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창작촌'은 문체부와 담양군 지역특성화사업보조금으로 제작되었다. /박성천기자 jkspark@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KJB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문의 110-0497254호, 110-1229196호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